지도로 보는 기후변화

7

| 활동 개요 |

대상

대학생

개발 의도

- 기후변화 현상은 지구적이고 다양한 원인들로 진행이 된다. 하지만 그 원인을 제공하는 국가와 영향을 받는 국가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도를 통해 원인과 영향에 대해 표시를 해 준다면 기후변화의 지구적 규모를 가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원인자와 피해자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의해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학습 목표

- 지구적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변화 현상에 대해 안다.
- 기후변화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에 대해 안다.
- 기후변화 문제가 가지고 있는 사회 정의와 불평등에 대해 안다.

내용 체계

기후변화 영향 : 기후변화의 윤리적 영향

내용	기후변화 현상					원인	영향	대응			선택	
차시							★					

차시 7차시/12차시 **소요시간** 2시간

장소 강의실 혹은 기후변화교육센터 내 교육실

준비물

- 지도자용 : 기후변화 관련 지도
- 학습자용 :

흐름도

도입 (30분)
- 기후변화의 원인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하기
- 기후변화가 일어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일 발표하기
- 기후변화 문제가 포함하고 있는 불평등의 문제 검토하기

↓

전개 (50분)
- 지도를 활용하여 기후변화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 알아보기
- 지도가 암시하고 있는 쟁점과 문제점 구체화하기

↓

마무리 (40분)
-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통해서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기
- 캠퍼스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일 목록 만들기

| 활동 내용 및 방법 |

1. 도입(30분)

(1) 기후변화의 원인에 대해 간략히 이야기해 본다.

[유의사항]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해 본다. 이미 알고 있다는 가정 하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지만 영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원인을 짚고 넘어가는 것도 좋을 것이다. 따라서 기후변화의 원인이 자연적인 원인 뿐 아니라 현대에 와서 진행되는 급속한 변화가 인간의 활동에 의한 것임을 이야기 한다.

(2) 기후변화가 일어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알아본다.

[유의사항] 많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수업에서 영향의 경우 겁을 주거나 지나치게 암울한 미래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지양해야 하는 교육 내용으로 문제를 대하는 입장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인식을 가지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나치게 암울한 영상이나 과하게 추측된 영화와 같은 것 보다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 인과관계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기후변화라는 이슈가 얼마나 많은 불평등을 포함하고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본다.

[유의사항] 전 세계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세계는 강대국이 약소국을 착취하는 경우가 많다. 부분을 살펴보면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다른 보이지 않는 나라의 노동력이나 자원 등을 착취하여 얻은 결과라면 지구 전체로 보면 지구 오염의 총량은 변화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각개의 나라별 지속가능한 모습이나 대응이 아니라 지구 전체적인 모습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2. 전개(50분)

(1) 지도를 보며 기후변화의 원인·영향·결과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을 비교하며 본다.

[활동상세] 기후변화와 관련된 자료들을 지도로 표시한 자료는 다양하다. 기후변화의 원인 물질이라고 밝혀진 온실기체의 발생량에 따른 국가별 비교, 기후변화에 의해 물에 잠기게 된 나라의 모습, 사막의 현재 모습과 확산될 가능성, 기후변화에 의해 피해를 입게 될 나라와 정도, 사라질 문화 및 자연유산, 물부족 국가, 식량 자원의 확보 등의 자료를 지도를 통해 비교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확연히 드러나는 것은 원인 제공 국가와 피해 국가가 다르다는 것과 지구 면적이 당장 입게 될 피해의 정도나 규모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준비물] 기후변화 관련 지도

[유의사항] 사진만을 단순히 보여주는 활동은 실제로 진행할 경우 지루할 수 있다. 또한 처음 몇 개는 생각을 하며 볼 수 있지만 조금 지나면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지구적 차원에서 이야기를 다룬다는 의미에서 지도를 활용할 수 있지만 보다 학습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시] 지도 안에서 사라진 땅에서 생산되는 것과 그로 인해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것
한국의 지도와 비교하여 시나리오에 따른 지도의 변화와 영향

(2) 지도가 암시하고 있는 쟁점과 문제점에 대해 알아본다.

[활동상세] 앞서 본 지도들에서 볼 수 있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본다. 지도에서는 기후변화에 원인을 제공하는 측과 피해를 입는 측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란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나라와 피해를 입는 나라는 확연한 차이를 보여준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예시] 현재 탄소거래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선진국들은 자국의 탄소 배출권을 늘리기 위해 바이오 연료를 이용한다. 이러한 바이오 연료는 제3세계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숲이 파괴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숲의 파괴는 결국 그 지역의 삶의 터전이 사라지는 것이며 지역의 삶이 선진국에 귀속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리고 파괴된 숲은 생태계의 교란을 가져오게 된다.

[유의사항] 일방적으로 선진국이 잘못했다는 식의 이야기를 이끄는 것 보다 서로의 입장을 생각해 보고 현재 만들어진 제도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3)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책과 제도들에 대해 토론해 본다.

[유의사항] 현재 세계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세계적인 행동 강령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세계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선진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되어 있거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 또는 과학기술적 해결 방안이 주인 경우가 많아 지구 전체의 오염 발생 총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임시방편인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 토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마무리(40분)

(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 이야기한다.

[활동상세] 지속가능발전이 내포한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어떠한 사회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환경, 경제 뿐 아니라 정의의 문제도 바로 서야 한다. 환경과 경제만 우선시 할 경우 환경은 경제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할 수 있으며 그러한 사회는 지속가능하기 어렵다. 따라서 세계의 불평등 구조에 대해 지도를 통해 살펴본 뒤 지구에서 지속가능하게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이야기해 본다.

(2) 지구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방법 중 사회정의적 측면에서 생각할 때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유의사항] 사회정의라는 측면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경우 익숙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워 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학생 정도의 위치라면 불편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도출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3) 대학 캠퍼스에서 단기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의 목록을 만들어 본다.

※ 참고할 만한 사이트

- ▹ 지구환경변화관측시스템(SOS :Science On a Sphere)
  - – http://www.youtube.com/watch?v=JU40wOlh5H0
  - – http://www.youtube.com/watch?v=3tPBa37fbfs&feature=related
  - – http://www.nasa.gov/multimedia/videogallery/index.html
- ▹ 왜곡된 지도
  - – http://www.worldmapper.org/index.html
- ▹ 동영상
  - – http://www.youtube.com/watch?v=9nGzZpz46S8

※ 참고할 자료

▹ Kirstin Dow 외(2009). 지도로 보는 기후변화. 시그마프레스

지도로 보는 기후변화

7

| 참고자료 |

[참고자료 1] 기후정의

기후정의 운동이란 무엇일까?

– 기후정의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최근 기후정의라는 단어가 새로운 운동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다른 환경단체들 역시 기후정의 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고, 특히 코펜하겐 기후변화 회의가 끝난 이후 국내에서 더 많이 통용되기 시작했다.

기후변화 활동가들은 기후변화로 고통받는 기후변화 취약국가들은 기후변화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온실기체라는 것을 한번도 들어본적도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주목했다. 기후변화 취약국가들이(특히 평균 GDP 100달러 수준의 최빈국가들) 기후변화로 인해서 감내해야 하는 고통들은 사실 선진국의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민들이 아무 생각없이 배출하는 온실기체로 인해서 발생한다. 선진국들은 온실기체를 '배출'하고 기후변화 취약국가들은 아무런 이유없이 그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 이런 개념이 바로 기후정의이다. 즉, 기후변화의 원인은 선진국이 초래하고 결과는 후진국이 받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은 '기후양극화' 혹은 '기후불평등'으로 표현된다.

기후정의 운동이 새롭게 주목받는 이유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적인 영향과 피해가 눈에 띄게 부각되고, 그로 인해 고통받는 기후변화 취약국가의 암울한 미래와 불운이 확실해지면서 부터이다. 기후정의 운동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기후변화를 둘러싼 매우 불평등하고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 당신은 북반구에 살고 있나요?

북반구에서의 소비와 생산체계, 즉 자본주의 시스템의 주요한 위기로 인해 기후변화는 이미 남반구의 사람들의 소통과 일상생활에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선진국들의 기후변화 책임에 대한 불평등을 고발하고 남반구에 위치한 섬나라들과 기후변화 취약국가들을의 권리를 위한 일하는 환경단테 '쥬빌리 사우스(www.jubileesouth.org)'는 다음과 같이 역설하고 있다.

'전 세계 인구의 약 18% 정도에 지나지 않는 북반구 선진국이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70% 배출하고 있다. 대기권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고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기후 재앙은 더 악화되고 빈번하게 발생하여 홍수와 가뭄, 해수면 상승과 질병 등을 일으키고 있다. 여기서 북반구란 남반구 사람들보다 1인당 온실기체 배출량이 약 5배 높은 북반구의 선진국 국민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기후정의를 위한 국제적인 운동의 흐름은 UN 기후변화 협약 6차 당사국 총회인 2000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출발했다. 그 자리에 모인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북 아메리카 등에서 온 500여 명의 지역 풀뿌리 지도자들이 UN 기후변화협약 6차 당사국 총회와 동시에 기후정의 1차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이들은 원주민 환경네트워크, 세계 우림운동, 오일워치 인터내셔널, 지구의 벗과 같은 환경단체들이었다. 이들이 주목한 것은 UN 기후변화 회의로부터 소외당하는 원주민과 환경 토착민들, 그리고 기후변화로 고통받지만 정치적, 경제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세계 곳곳의 소외받는 사람들이었다.

– 당신은 가해자인가요? 피해자인가요?

수많은 기후정의 운동가들은 그들이 던진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기후변화로 고통받는 취약국가 국민들의 삶을 선진국 국민들의 삶과 대비시켰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기체가 배출되는 주요한 이유는 '선진 산업국의 경제활동'에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선진 산업국의 국민들은 그들의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자동차를 타고, 보일러를 태운다. 또 전기를 통해 빛과 열을 만들기 위해 석유를 태운다. 과거에는 누구도 이러한 행동을 도덕적으로 질타하지 않았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위해 석유를 더 많이 태우고 전자제품을 더 많이 만드는 것은 사람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특권이었다. 이 과정은 국가적으로 산업화되었고, 자본주의의 시스템 아래 구조화되었다. 일반적으로 이 시스템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구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에서는 다량의 온실기체가 배출될 수밖에 없고 온실기체 배출은 현재 기후변화라는 괴물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은 누구도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선진국의 대부분 선량한 국민들은 가해자가 되었고, 기후 범죄자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가해자나 범죄자라는 말이 불편하게 들릴 수 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죄 없고 선량한 시민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실상은 그럴까? 전 지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아무리 선진국들의 선량한 시민들일지라도 기후변화에 일조하는 온실기체 배출을 무분별하게 하고 있는 당신이라는 '기후범죄자'라는 말을 듣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인정하기 싫고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는 인류라는 역사의 과정에서 미래를 예측하지 않고 행동하고 있는 예견된 기후 범죄자

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이 순간에도 기후변화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취약국가들에게는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이 너무나 노골적이고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앞으로 더이상 이러한 피해는 기후변화 취약국가들에게만 닥치는 문제가 아니다.

지난 200년 동안 지구평균온도는 0.74도 상승했으며, 금세기 말까지 약 4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시나리오의 경우 최대 6도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 유엔인구기금(UNFPA)에 의하면, 기후변화로 인한 세계 자연재해는 지난 20년간 약 200회에서 최근 약 400회로 두 배 이상 늘어났고, 1973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평균 1억 6천만 명 이상이 기후변화로 죽어가고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당장 매일 2천만명 이상이 가뭄으로 인해 먹을거리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해수면 상승으로 영토 포기선언을 한 투발루 국민들의 생존을 위한 타국으로의 이주는 극소수의 사람만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들에게 우리는 기후변화에 책임을 모두 스스로 감내하라고 할 수 있을까. 그건 그들의 운명이라고 치부하기에 우리는 너무 안락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 것인가.

– 너무나 불평등한 상황,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할 때

지금 상황을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선진국 국민들이 아무런 도덕적 책임의식을 가지지 않으며 무방비 상태로 배출해오고 있는 온실기체가 국경없는 대기 중으로 날아가 보이지 않는 망치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지구상에 살고 있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그러나 너무나 불평등하게도 가난하고 열역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그 피해가 우선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기후변화로 고통받는 기후변화 취약국가의 사람들은 기후변화라는 말을 들어보지도 온실기체라는 용어를 겪어보지도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자신들이 일으키지도, 책임지지 않아도 될 온실기체 배출에 따른 고통을 그들은 삶 속에서 일상적으로 감내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기후변화 영향으로부터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기후난민' 이자 '기후 피해자' 들로 후대에 기록될 것이다. 이는 곧 기후양극화와 기후불평등이라는 개념까지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 다양한 방법으로 직접적인 지원책이 필요

2000년 헤이그에서 출발한 기후정의 운동에 대한 전 세계인의 열망은 해가 갈수록 조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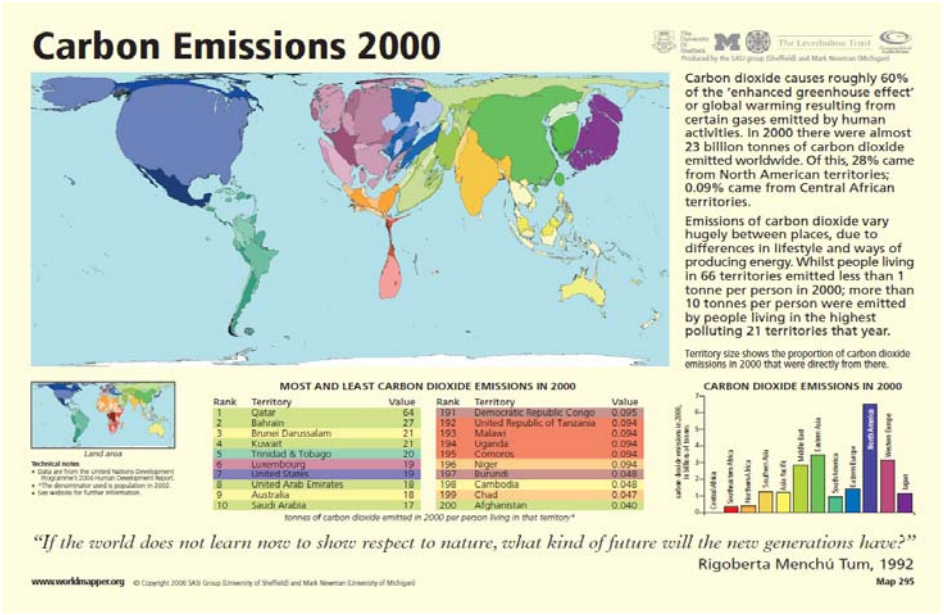
되고 그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해가 갈수록 뜻있는 사람과 단체가 모여 2007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13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기후정의 네트워크(CJN : Climate Justice Now)가 결성되었다. 기후정의 네트워크(CJN)는 기후정의 운동에 동의하고 함께하는 전 세계 환경 네트워크이다. 기후정의 네트워크에 속한 조직들은 선진국은 선진국이 배출하는 온실기체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기후변화로 고통받는 취약국가들을 위한 기후적응 기금이나 펀드를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 개도국들에게 기술이전이나 적응을 위한 직접적인 피해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UN에 공식 제출하고 있다. 실제 개도국은 기후변화로 인한 적응 정책에 있어서 적극적일 수 없다. 그들은 지금 당장 자국의 국민들이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적응 기술이 없거나 재정능력이 없어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이다. 한국도 기후정의의 관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기후변화로 직접적인 고통을 받는 나라의 국민들을 위해서 정부나 기관, 단체 등에서 기후변화 적응기금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출처 : 녹색연합 기후에너지국 손형진, http://blog.naver.com/1102shj/140110338728

지도로 보는 기후변화

7

[참고자료 2] 나라별 이산화탄소량 지도



Carbon Emissions 2000

Carbon dioxide causes roughly 60% of the 'enhanced greenhouse effect' or global warming resulting from certain gases emitted by human activities. In 2000 there were almost 23 billion tonnes of carbon dioxide emitted worldwide. Of this, 28% came from North American territories; 0.09% came from Central African territories.

Emissions of carbon dioxide vary hugely between places, due to differences in lifestyle and ways of producing energy. Whilst people living in 66 territories emitted less than 1 tonne per person in 2000; more than 10 tonnes per person were emitted by people living in the highest polluting 21 territories that year.

Territory size shows the proportion of carbon dioxide emissions in 2000 that were directly from there.

MOST AND LEAST CARBON DIOXIDE EMISSIONS IN 2000

Rank	Territory	Value	Rank	Territory	Value
1	Qatar	64	191	Democratic Republic Congo	0.095
2	Bahrain	27	192	United Republic of Tanzania	0.094
3	Brunei Darussalam	21	193	Malawi	0.094
4	Kuwait	21	194	Uganda	0.094
5	Trinidad & Tobago	20	195	Comoros	0.094
6	Luxembourg	19	196	Niger	0.094
7	United States	19	197	Burundi	0.048
8	United Arab Emirates	18	198	Cambodia	0.048
9	Australia	18	199	Chad	0.047
10	Saudi Arabia	17	200	Afghanistan	0.040

tonnes of carbon dioxide emitted in 2000 per person living in that territory*

CARBON DIOXIDE EMISSIONS IN 2000

Land a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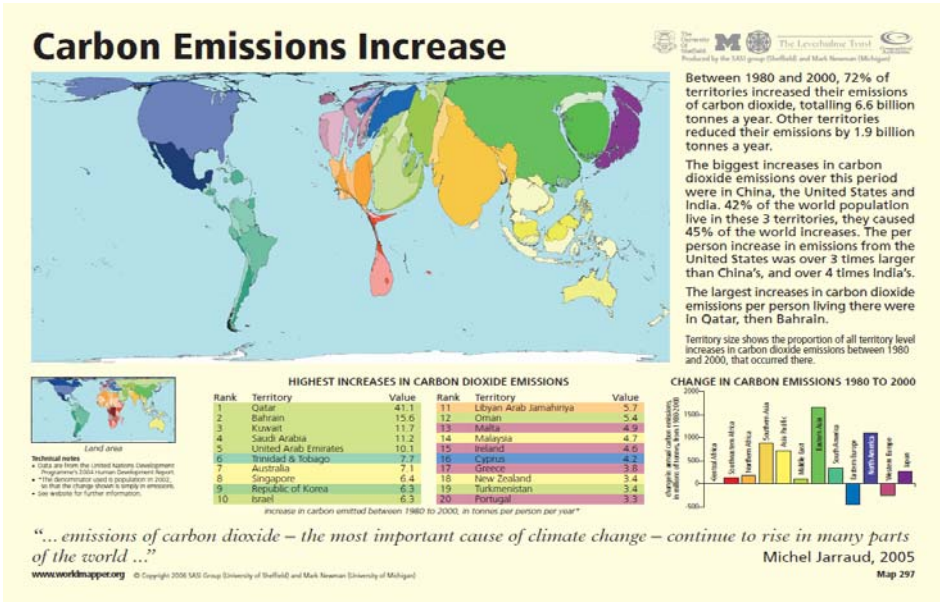
Technical notes
• Data are from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s 2004 Human Development Report.
• *The denominator used is population in 2002.
• See website for further information.

"If the world does not learn now to show respect to nature, what kind of future will the new generations have?"
Rigoberta Menchú Tum, 1992

www.worldmapper.org © Copyright 2006 SASI Group (University of Sheffield) and Mark Newman (University of Michigan)

Map 295

→ 2000년에 각 나라가 배출한 이산화탄소량에 대한 지도



Carbon Emissions Increase

Between 1980 and 2000, 72% of territories increased their emissions of carbon dioxide, totalling 6.6 billion tonnes a year. Other territories reduced their emissions by 1.9 billion tonnes a year.

The biggest increases in carbon dioxide emissions over this period were in China, the United States and India. 42% of the world population live in these 3 territories, they caused 45% of the world increases. The per person increase in emissions from the United States was over 3 times larger than China's, and over 4 times India's.

The largest increases in carbon dioxide emissions per person living there were in Qatar, then Bahrain.

Territory size shows the proportion of all territory level increases in carbon dioxide emissions between 1980 and 2000, that occurred there.

HIGHEST INCREASES IN CARBON DIOXIDE EMISSIONS

Rank	Territory	Value	Rank	Territory	Value
1	Qatar	41.1	11	Libyan Arab Jamahiriya	5.7
2	Bahrain	15.6	12	Oman	5.4
3	Kuwait	11.7	13	Malta	4.9
4	Saudi Arabia	11.2	14	Malaysia	4.7
5	United Arab Emirates	10.1	15	Ireland	4.6
6	Trinidad & Tobago	7.7	16	Cyprus	4.2
7	Australia	7.1	17	Greece	3.8
8	Singapore	6.4	18	New Zealand	3.4
9	Republic of Korea	6.3	19	Turkmenistan	3.4
10	Israel	6.3	20	Portugal	3.3

increase in carbon emitted between 1980 to 2000, in tonnes per person per year*

CHANGE IN CARBON EMISSIONS 1980 TO 2000

Land a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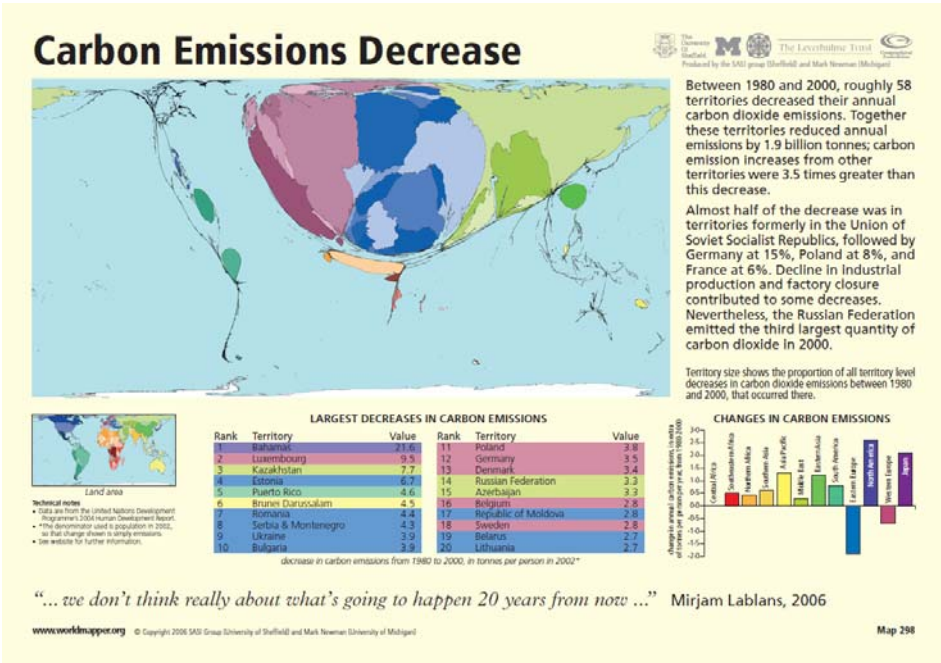
Technical notes
• Data are from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s 2004 Human Development Report.
• *The denominator used is population in 2002, so that the change shown is simply in emissions.
• See website for further information.

"... emissions of carbon dioxide – the most important cause of climate change – continue to rise in many parts of the world ..."
Michel Jarraud, 2005

www.worldmapper.org © Copyright 2006 SASI Group (University of Sheffield) and Mark Newman (University of Michigan)

Map 297

→ 1980년부터 2000년까지 각 나라가 배출한 이산화탄소량의 증가분에 대한 지도



→ 1980년부터 2000년까지 각 나라가 배출한 이산화탄소량의 감소분에 대한 지도

[참고자료 3] 지속가능발전

◉ 지속가능발전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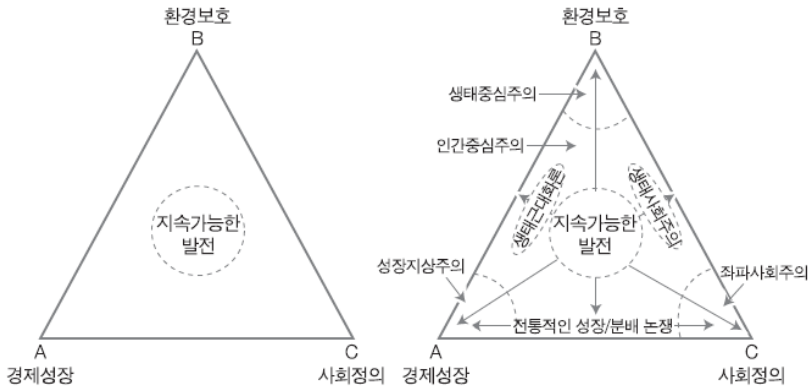
지속가능발전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의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제2조 제1호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2009년 1월에 입법예고되었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이라 함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룸으로써,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이 정의에서는 사회의 안정 통합, 혹은 사회적 형평성이란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반발이 일자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바꾸었다.

지속가능발전 개념은 널리 알려진대로 세계환경개발위원회(World Commi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가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한 이래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왔다. 1992년에 브라질의 리우데 자네이로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에서 의제 21을 채택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행동계획 수립을 세우는 데 합의하였다. 같은 해에 유엔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UN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UN CSD)를 설치하고, 각 국가에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를 구축하도록 권고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환경운동 진영에서만이 아니라 정부의 계획 및 정책 결정 과정, 나아가 기업의 영업활동에 이르기까지 지속가능발전은 중심적인 개념적 토대가 되어왔다. 하지만 지속가능발전이란 개념은 여전히 추상적이어서 구체성을 띠고 있지는 않으며 지속가능발전이 추구하는 사회적 목표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많은 연구와 다양한 국제회의의 진행과정 속에서 조금씩 윤곽을 잡아왔으며 특히 2002년 남아프라키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주요 요소로 "경제, 환경, 사회"라는 세 가지 축(triple bottom line)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경제성장(economic growth)과 환경보호(environmental protection), 사회정의(social justice)의 세 차원을 두루 균형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지속가능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경제, 환경, 사회의 세 차원(〈그림 1〉의 삼각형의 세 꼭짓점인 A, B, C)을 균형적으로 고려한다는 정의에도 불구하고 강조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입장들은 다양하게 나뉠 수 있다. Connelly(2007)가 제안하듯이 지속가능발전에 관해 다양한 담론들이 지속가능발전의 세 차원 중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위치를 표시해보면 〈그림 1〉의 오른쪽 그림과 같다. 원론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이 균형적으로 이 세 차원을 통합하려는 입장이라면 삼각형의 세 꼭지점에 위치한 담론들은 각각의 차원을 극단적으로 내세운다. 가령, 성장지상주의는 A에 위치하고 있는 담론으로 경제성장을 다른 어떤 차원보다 강조하며 환경보호와 사회정의는 장식용이나 녹색세탁(green wash)의 차원에서 논의될 뿐이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는 경제 성장이기에 환경 보호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이유는 환경보호활동에 경제적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사회정의, 즉 평등에 신경을 쓰게 되는 이유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 경제성장이 저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Connelly, 2007 재구성

〈그림 1〉 지속가능발전의 세차원과 담론 유형

반면 세 차원 중 환경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생태중심주의(eco-centrism)는 〈그림 1〉 삼각형의 B에 입지한다. 환경보호를 지속가능발전의 핵심으로 보면서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은 공존하기 힘들기 때문에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을 화해하는 방식의 지속가능발전 개념은 절충안이자 타협안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접근으로 간주된다.

전통적인 좌파 사회주의의 경우 세 가지 차원 중에서 사회정의, 즉 평등을 무엇보다 중시하여 〈그림 1〉 삼각형의 C에 자리한다. 물질적 성장은 분배의 필요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하며 인간 중심주의적 관점에서 환경은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는 수단으로 인식된다.

출처 : 윤순진, 저탄소 녹색성장의 이념적 기초와 실재, ECO 2009년 제13권 1호.